

# 한국 도서관계의 다문화 서비스 방향 모색\*

- 미국 공공도서관의 사례를 참고하여 -

## Toward the Multicultural Library Services in Korea : with reference to the American Public Libraries

노 지 현(Jee-Hyun Rho)\*\*

### < 목 차 >

- |                        |                            |
|------------------------|----------------------------|
| I. 논의를 시작하며            | 3. 이주민 서비스의 실제             |
| II. '다문화'의 의미에 대한 해석   | IV. 미국의 사례가 한국 도서관계에 주는 교훈 |
| III. 미국 공공도서관의 이주민 서비스 | V. 결 론                     |
| 1. 이주민의 집단적 특성         |                            |
| 2. 이주민 서비스의 현황         |                            |

### 초 록

다문화 시대에 도서관의 역할과 서비스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 사회에서 추구하는 다문화의 가치를 도서관의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 도서관계의 다문화 논의는 우리와는 문화적 토양이 상이한 서구 국가의 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실행 방안 또한 이들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례를 외형적으로 모방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미국의 역사적이고 사회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이주민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가 어떻게 발전하여 왔는지 그 실체를 정확하게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의 상황에서 수용해야 할 것과 향후 비판적 검토가 필요한 것을 구분하여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는 문헌연구와 사례 도서관(뉴욕 퀸즈도서관, LA공공도서관, 시애틀공공도서관)에서의 관찰 및 면담을 통해 수집하였다.

키워드: 다문화 도서관 서비스, 이주민 서비스, 소수민족 서비스, 다문화 도서관 정책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the multicultural library services that reflects the unique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of Korea. The Korean libraries have accomplished very prompt adaptations and unquestioning acceptance of the western model, although Korean conditions are totally different from the western.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study intends to critically analyze the multicultural library services, based on a thorough investigation of the American libraries' experiences. As a result, this study suggests the proper answers which can be applied to the present Korean library situation. The data for discussion were collected by literature survey, direct observation of American public libraries, and interviews or e-mails with American librarians.

Key words: Multicultural library services, Library services for immigrants, Library services for minorities, Library policy in multicultural society

\* 이 과제는 2009학년도 부산대학교 교수국외장기파견 지원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jrho@pusan.ac.kr)

• 접수일: 2012년 5월 24일 • 최종심사일: 2012년 6월 1일 • 최종심사일: 2012년 6월 28일

## I. 논의를 시작하며

2007년 8월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이 백만을 돌파하였다는 사실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에서 ‘다문화주의’ 또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담론이 봇물처럼 터지기 시작하였다. 정부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에서는 앞 다투어 ‘다문화 정책’을 내놓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그 어느 때보다 받 빠르게 편성하였다. 우리 사회 전반에 불어 닥친 ‘다문화’의 열풍은 도서관계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다문화 자료실’을 마련하는 공공도서관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다문화 가정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도서관의 단골 행사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더해, 기업이나 민간단체, 지자체에서 ‘다문화 도서관’의 건립을 후원하면서 우리 도서관계에서 다문화는 현재 새로운 문화 코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문화에 대한 우리 도서관계의 관심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나아가 사회, 문화, 인구구성 측면에서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분명 긍정적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현재 드러나는 문제점은 정책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도 있으나 이보다는 철저한 사전준비나 실행 경험의 노후가 축적되지 않은 채 가시적인 성과 위주의 사업을 진행하는데 급급했다는 데서 주로 기인하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진지한 고려도 없이, 다문화 사회의 진행 과정과 사회문화적·역사적 기반이 전혀 다른 서구 도서관계의 사례를 모델로 삼고 있다는 점은 우리 도서관계에서 다문화와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방향과 실효성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주지하다시피 도서관은 문화의 산물이다. 도서관에는 그 사회의 고유한 철학과 가치 그리고 문화가 그대로 녹아 있다. 다문화 시대에 걸맞은 도서관의 역할과 서비스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 사회에서 추구하는 다문화의 가치를 도서관의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와 관련한 이론적 논의는 주로 우리와는 문화적 토양이 상이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실행 방안 또한 이들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례를 외형적으로 모방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sup>1)</sup>

이 연구는 필자가 연구년을 맞이하여 미국에 1년간 체류하면서 미국 공공도서관계의 다문화 서비

1) 가령, 지금까지 우리 학계에서 출판된 관련 학술논문 20여 편을 분석해 보면, “다문화 사회 진입이 오래된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의 사례”를 참조하면서 “우리 도서관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2, 3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겠지만, 우리가 참조해 온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에서 다문화에 대응해 온 방식이나 역사적 배경은 그들 간에도 분명한 입장 차이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상당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스를 경험한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다. 미국 도서관계의 실상을 직접 체험한 후 필자가 깨달은 것은 지금까지 피상적으로 알려져 왔던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다문화와 관련한 미국 도서관계의 역사적이고 사회문화적인 배경과 의미를 보다 정확히 깨달을 때 비로소 그들이 추구해 온 다문화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더불어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비록 짧은 시간 동안의 관찰과 경험에 근거한 필자의 숙성되지 않은 단상에 지나지 않지만, 이 연구는 미국 도서관계에서 추진해 온 다문화 서비스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그동안 우리 도서관계에서 추진해 온 다문화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논의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은 다음 두 가지 방법에 의거하였다. 먼저, ‘다문화’의 의미와 다문화에 대처하는 각국의 양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문헌 자료들을 포괄적으로 수집하여 활용하였다. 이어, 미국에서도 대표적인 ‘다문화 도시’로 손꼽히는 뉴욕, LA, 시애틀 지역의 공공도서관(뉴욕 퀸즈도서관, LA공공도서관, 시애틀공공도서관)을 사례로 하여 다문화와 관련하여 이들이 대응해 온 과정과 방식을 직접 조사하였다. 사례 도서관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는 문헌과 도서관 홈페이지, 각종 통계자료를 통해 수집하였고, 더불어 세 곳 도서관의 중앙도서관(central library)을 방문하여 관찰하면서 담당사서와의 면담이나 이메일 서신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확보하였다.<sup>2)</sup> 미국 도서관계의 사례를 통해 확보한 교훈은 우리 도서관계와 비교하여 논의하는데 활용함으로써 향후 우리 도서관계에서 다문화 서비스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 II. ‘다문화’의 의미에 대한 해석

지금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다문화’라는 용어는 우리가 자생적으로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다. 관련 문헌을 살펴보면, 다문화는 다인종(multi-racial), 다민족(multi-ethnic)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에서 소수인종과 민족, 그리고 그들이 가진 고유한 문화를 지칭하기 위해 1957년 스위스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sup>3)</sup> 이후 1960년대 후반 북미와 유럽에서 ‘인권개혁운동’의 일환으로 이주민

2) 미국의 공공도서관은 ‘중앙도서관’(central library 혹은 headquarter)과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다수의 ‘분관’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료의 선정, 구입, 편목 등과 같은 기술적 업무(technical services)는 각 지역의 중앙도서관이나 별도의 도서관서비스센터(library services center)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으며, 분관에서는 주로 이용자 서비스만을 담당하고 있다. 중앙도서관이 각 지역의 ‘대표’ 도서관으로서 다양하고 포괄적인 이용자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분관은 주로 지역 커뮤니티의 성향과 특성에 따라 다소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도서관 방문 및 관찰, 면담은 주로 중앙도서관에서 이루어졌으며,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특정 지역에 위치한 분관을 방문하였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뉴욕 퀸즈도서관은 1개의 중앙도서관과 61개의 분관으로, LA 공공도서관은 1개의 중앙도서관과 72개의 분관으로, 시애틀 공공도서관은 1개의 중앙도서관과 27개의 분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 커뮤니티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대해서는 3장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3) 홍기원, “다문화사회의 정책과제와 방향: 문화정책의 역할과 과제,”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2007), p.6.

에 대한 국가 정책을 마련하면서 보다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백인으로 구성된 주류 집단과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인 등 소수인종에 속하는 피부색이 다른 비주류 집단과의 인종 갈등의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문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이렇듯 이주민으로 시작된 나라이거나 소수민족의 이주 역사가 오래된 서구 사회에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다인종, 다민족 사회를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문화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켜 왔다.

그렇다면 오늘날 '다문화'는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 현재 이 용어는 국가적 배경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매우 상이한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다.<sup>4)</sup> 가령, 다문화를 소수민족이나 이주민이 가진 고유한 문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다문화에는 '다른 문화'라는 의미가 짙게 깔려 있다. 반면, 국가나 인종, 민족 등 거시적인 차원에 국한하지 않고 성별, 직업별, 세대별, 종교별, 계층별로 다양한 사회 집단에서 문화적 다수집단이 소수집단을 동등한 가치를 가진 집단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이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다문화가 '다양한 문화'라는 의미를 가진다. 전자가 인종이나 민족이 가진 생물학적 '차이'를 강조한다면, 후자는 다양한 사회 계층이 가진 문화를 중심으로 '평등'이나 '공존'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로 인해 '다문화'는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다문화의 의미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다문화 사회, 다문화 정책, 다문화 교육 등에서 '다문화적'(multi-cultural)이라는 말은 "한 사회에서 이질적인 문화가 평화롭고 평등하게 공존하는"<sup>5)</sup> 혹은 "한 사회 내에서 상이한 문화적 그룹이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sup>6)</sup>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전적 정의를 참조하면, 다문화는 다양한 사회 계층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다양성'(cultural diversity)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의 의미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IFLA의 『다문화 도서관 선언문』<sup>7)</sup>이나 캐나다도서관협회의 『다문화 도서관 정의』<sup>8)</sup>, 미국도서관협회의 다문화 관련 위원회 활동<sup>9)</sup>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다문화 서비스(multicultural library services)를 "언어나 가치관, 경제적 여건, 교육 수준, 육체적 장애, 성적 취향, 인종적·민족적·종교적·문화적 배경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제공하는 도서관 서비스"로 규정하면서 다문화가 반드시 인종이나 민족적 특성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sup>10)</sup>

4) Jens Ingemann Larsen, Deborah L. Jacobs, Ton van Vlimmeren, *Cultural Diversity: how public libraries can serve the diversity in the community*(Gutersloh : Bertelsmann Stiftung, 2004), p.9.  
 5) The Free Dictionary, <<http://www.thefreedictionary.com/multicultural>> [cited 2012. 4. 6].  
 6) Oxford English Dictionary, <<http://www.oed.com/view/Entry/234921?redirectedFrom=multiculturalism#eid>>, [cited 2012. 4. 6].  
 7) IFLA, *Multicultural Library Manifesto*, IFLA, 2008.  
 8) Canadian Library Association, *Defining the multicultural library*(Canadian Library Association, 2008).  
 9) ALA, Diversity Committee, <<http://www.ala.org/groups/committees/ala/ala-minconcul>> [cited 2012. 4. 6].  
 10) 이처럼 다문화 서비스는 '다른 문화' 보다는 '다양한 문화'라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다문화 서비스에 대한 논의에서 'underserved group', 즉 지금까지 충분한 도서관 서비스를 받아오지 못한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되는 이용자 집단으로 ① 이민자 소수집단, ② 망명자나 임시 체류 거주민, ③ 이주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인종이나 민족적 다양성은 한 사회 내에 존재하는 여러 문화적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지 이것이 곧 다문화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는 '소수민족' 혹은 '이주민'의 문화라는 인식이 강하게 퍼져있다. 다문화에 대한 이러한 오해는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이 용어가 서구 사회에서 인종적으로 백인을 제외한 다른 인종 집단에 대한 차별과 비하의 오랜 역사적 과정 속에서 형성되었고,<sup>11)</sup> 현재 많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 정책 또한 주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소수민족의 사회통합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데 있다. 뿐만 아니라 서구 사회에서 '다양성'이 가진 의미가 암묵적으로 '인종적 다양성'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도 다문화화를 이처럼 '이주민의 문화'로 간주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sup>12)</sup>

한편, 다문화의 의미는 각국에서 소수민족이나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정책에 따라서도 다소 상이하게 해석되고 있다.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문화화를 대하는 관점에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가령, 소수민족이나 이주민 정책의 목표를 '동화'(assimilation)에 두는 경우에는 이들의 언어적, 문화적, 사회적 전통을 주류문화에 흡수 통합하는 관점에서, 그리고 '통합'(integration)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경우에는 소수민족이나 이주민의 문화와 전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장려하면서 주류문화와 소수민족 문화의 평등한 연합이라는 관점에서 다문화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 소수민족이나 이주민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국가들 가운데, 미국이나 프랑스는 주로 소수민족의 문화를 주류문화에 동화시키는 정책을,<sup>13)</sup> 캐나다나 호주는 소수민족의 고유문화를 인정하면서 그 토대 위에 국가의 개념을 발전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서 해석하는 다문화의 의미는 결과적으로 다소 상이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다문화는 다양한 관점에 따라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비교적 최근에 '다문화'에 주목하기 시작한 우리는 다문화화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을까? 우리 정부에서는 다문화사회를 "언어, 종교, 관습, 가치관, 국적, 인종, 민족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민자 등이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이루어진 사회"로 규정하고, 이민자(이주민)를 '다문화인'으로 칭하면서 다문화화를 '이주민

노동자, ④ 주류사회와 다른 인종이나 언어,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원주민 등이 지목되고 있다(IFLA, *Defining Multiculturalism*(IFLA Library Services to Multicultural Populations Section, 2005), <<http://www.ifla.org/VII/s32/index.htm>> [cited 2012. 2. 6]).

11) 김선미, "「한국적」 다문화정책과 다문화교육의 성찰과 제언," *사회과교육*, 제50권, 제4호(2011), p.175.

12) Lorna Peterson, "Multiculturalism: affirmative or negative action?," *Library Journal*, Vol.120, No.12(July 1995), p.31.

13) 미국의 경우 소위 '용광로(melting pot)' 이론이라 불리는 동화주의적 입장을 오랫동안 고수해 오다가 1990년대 인종 간의 대립과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소수민족과 이민자의 고유문화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통합적 입장('샐러드볼(salad bowl)' 이론)으로 전환하였다. 현재 미국은 통합적 입장을 지향하지만 소극적인 '자유방임'으로 일관하고 있어, 많은 학자들은 미국이 이주민에 대해 여전히 동화주의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김호연, "미국의 동화주의적 이민자 정책과 다문화주의," *인문과학연구*(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제28집(2011), pp.252).

의 문화'와 완전히 동일시하고 있다.<sup>14)</sup> 이주민에 대한 다문화 정책에서도 우리는 서구 국가들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주민 집단에 따라 공식적인 권한을 인정하기도 부정하기도 하는 이중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의 경우 사회 구성원의 일부가 아닌 '손님'으로 여기면서 정책의 대상으로 통합하지 않는 반면, 결혼이주여성이나 북한이탈주민과 같이 공식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이주민에 대해서는 자국 문화로의 '동화'를 강요하면서 문화적 단일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sup>15)</sup> 이에 더해, 전체 인구에서 이주민이 차지하는 비율이나 주류집단과 이주민 집단 간의 사회적 갈등도 서구 사회와는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인접 학문의 학자들은 “한국적인 특성을 반영한 다문화 논의를 펼쳐야 하고,” “외국의 사례와 이론적 틀은 수용하여 참고하되 문화적 토양이 다른 한국사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며,” “외국의 사례 중 수용할 것과 한국적 상황에 적합하게 개발되어야 할 부분들이 명확히 구분되어 논의되어야 할 것”임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sup>16)</sup>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미국 사회가 가진 사회문화적 배경과의 관계망 속에서 미국 도서관계의 다문화 서비스를 자세히 분석하고자 하였다. 미국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도서관 서비스를 연관시켜 살펴보면, 미국 도서관계에서 다문화 서비스가 가지는 의미는 물론이고 우리의 상황에서 수용해야 할 것과 향후 비판적 검토가 필요한 것에 대한 구분이 보다 뚜렷해 질 것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에서 '다문화'라는 용어는 다소 중의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1970년대에 도서관계의 관심이 고되었던 '소수민족'이 1990년대 이르러 '다문화'라는 말로 포장되는 경향이 짙게 나타났지만, 현재 다문화라는 말은 특정 계층이 아닌 여성이나 성적 소수자, 장애인, 원주민, 아시아계 미국인, 히스패닉인, 흑인 등 다양한 사회 계층(특히 소수계층)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sup>17)</sup>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 다문화는 주로 '이주민의 문화'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3장에서는 미국 도서관계의 다문화 서비스 가운데 '이주민'에 관한 내용만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4) 법무부, 다문화사회 통합 프로그램 이수제(법무부, 2008).

15) Castles와 Miller는 각국에서 추진하는 다문화 정책의 유형을 분석하여 3가지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이들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다문화 정책은 미국식 '동화주의 모형'이나 캐나다식 '다문화주의 모형'과 구분되는 '차별배제모형'(differential exclusionary model)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S. Castles & M.J. Miller,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N.Y. : The Guilford Press, 2003)).

16) 윤인진,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한국사회학, 제42집, 제2호(2008), pp.72-103 ; 김미나, “다문화 사회의 진행 단계와 정책의 관점,” 행정논총, 제47권, 제4호(2009), pp.193-222 ; 김선미, “‘한국적’ 다문화정책과 다문화교육의 성찰과 제언,” 사회과교육, 제50권, 제4호(2011), pp.173-190 ; 이경희, “한국 다문화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육사회학연구, 제21권 제1호(2011), pp.111-131 등.

17) Lorna Peterson, “Multiculturalism: affirmative or negative action?,” *Library Journal*, Vol.120, No.12(July 1995), p.30.

### Ⅲ. 미국 공공도서관의 이주민 서비스

#### 1. 이주민의 집단적 특성

이주민을 위한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살펴보기에 앞서, 미국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주민과 소수민족의 역사에 대해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유럽인의 대거 이주를 시작으로, 다양한 국적과 인종·민족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을 받아들이면서 탄생한 특수한 형태의 이주민 국가이다. 이러한 초기 이주민의 구성은 소수민족의 법적 지위가 향상되고, 이민법이 개정된 1960년대 이후 큰 변화를 겪었다. 히스패닉과 아시아계를 중심으로 급팽창한 이주민 집단은 기존의 아프리카계 미국인(흑인)이나 원주민과 함께 새로운 소수민족을 구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 현재 미국의 소수민족은 약 1억 12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6.3%를 차지하고 있다.<sup>18)</sup>

이러한 소수민족 가운데는 외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주한 '新' 이주민(newcomers)도 포함되어 있다. 新이주민은 현재 3,700만 명으로 미국 인구의 12%에 이르고 있다. 18세 이하의 어린이·청소년 가운데 4명 중 1명이 이주민이거나 이주민의 자녀일 만큼 젊은 층에서 新이주민의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정치경제적인 측면에서만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이미 주류문화에 동화되거나 편입되어 살아가는 사람들(old-comers)과 달리, 이들 新이주민은 여전히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거나 모국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높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2010년 인구통계 조사에 따르면, 미국 인구의 19.6%가 가정에서 영어가 아닌 자신의 '모국어'를 사용하고 있으며(〈표 3〉 참조), 영어를 전혀 못하거나 거의 못하는 비율도 무려 24.4%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新이주민의 현저한 증가로 인해 미국은 다양한 사회제도와 사회서비스에 이들의 인종적·민족적·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특수한' 환경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부터 살펴볼 '뉴욕 퀸즈도서관'과 'LA공공도서관', '시애틀공공도서관'이 위치한 지역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이들 세 곳 도서관이 위치한 도시는 인종적·문화적 특성이 약간 상이한데, 뉴욕 퀸즈 지역과 LA 시의 경우 미국 내에서 소수민족의 비율이 단연 높은 곳이며, 시애틀 시는 최근 10년간 소수민족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도시 중 하나이다. 소수민족의 구성에서도 이들 세 지역은 차이가 나는데, 뉴욕 퀸즈 지역은 히스패닉, 흑인, 아시아인의 비율이 골고루 높은 반면, LA는 히스패닉이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수민족의 비율이 대체로 낮은 편에

18) 참고로, 미국에서 소수민족(minority groups)은 'non-Hispanic white를 제외한 모든 인종'으로 간주하고 있다. 지난 1970년대 이후 이러한 소수민족의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미국 사회의 주류로 간주되어 왔던 '非히스패닉계 백인'(non-Hispanic white)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미국 정부에서는 2050년이 되면 소수민족의 비율이 미국 전체 인구의 50%를 웃돌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Philip Martin & Elizabeth Midgley, *Population Bulletin Update: Immigration in America 2010*(Population Reference Bureau, 2010), <<http://www.prb.org/pdf10/immigration-update2010.pdf>> [cited 2012. 4. 11]).

속하는 시애틀의 경우 아시아인의 비율이 유독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표 1〉 참조). 또한, 뉴욕, L.A, 시애틀에서 新이주민의 비율은 각각 48.1%, 39.6%, 17.3%로써 세 도시 모두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으며(〈표 2〉 참조), 지역 주민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도 각각 56.2%, 59.7%, 21.3%가 영어가 아닌 '모국어'일 만큼 新이주민이 가진 민족적 정체성이 뚜렷하다(〈표 3〉 참조).

이들 세 도시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가진 이러한 집단적 특성을 참조하면서, 지금부터는 新이주민의 인종적·문화적·언어적 다양성에 각 지역의 공공도서관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더불어 뉴욕, L.A, 시애틀 도시 간의 인종적·문화적 차이가 각 공공도서관 서비스에 어떻게 다르게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해 찬찬히 살펴보기로 하자.

〈표 1〉 미국의 인종 구성<sup>19)</sup>

	미국 전체	Queens	L.A.	Seattle
White (non-Hispanic)	63.7%	32.9%	28.9%	69.0%
Hispanic/Latino	16.3%	25.0%	48.6%	6.1%
Black/African American	12.2%	19.0%	9.4%	6.8%
Asian	4.7%	17.5%	10.7%	13.1%
Native American	0.9%	0.3%	0.2%	0.6%
two or more	1.9%	4.1%	1.6%	3.6%
기타	0.2%	1.3%	0.6%	0.8%

〈표 2〉 외국에서 태어난 新이주민의 비율

	미국 전체	Queens	L.A.	Seattle
新이주민의 비율	12%	48.1%	39.6%	17.3%

〈표 3〉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sup>20)</sup>

	미국 전체	Queens	L.A.	Seattle
영어	80.4%	43.8%	40.3%	78.7%
영어 이외의 모국어	19.6%	56.2%	59.7%	21.3%

19) U. S. Census Bureau, "The 2012 Statistics Abstract: The National Data Book",  
 〈<http://www.census.gov/compendia/statab/cats/population.html>〉 [2012. 4. 11].

미국 인구센서스 조사에서 인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 White : 아이리쉬, 독일, 이탈리아, 레바논, 아랍, 모로코, 코카서스 등 유럽, 중동, 북아프리카계 백인
- Hispanic/Latino : 쿠바, 멕시코, 푸에르토리코, 남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 그 외 스페인 문화권계 사람
- Black/African American : 아프리카계 흑인
- Asian : 동아시아, 남아시아, 인도 출신의 사람
- Native American : 아메리카 인디언, 알래스카 원주민, 하와이 원주민, 기타 미국령 원주민



## 2. 이주민 서비스의 현황

사례 도서관을 방문하면서 필자가 받은 첫 느낌은 도시의 색채만큼이나 도서관의 분위기가 ‘다문화적’이라는 점이었다. 도서관 곳곳에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예술작품이 전시되어 있고, 도서관 소개나 표지판의 언어가 다양한 언어로 기술되어 있는 등 이주민에 대한 도서관의 세심한 배려의 흔적이 바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사서의 육성을 통해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이주민이 “도서관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환영받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었다. 더불어, 그들은 이주민에 대한 도서관의 이러한 ‘非배타적’ 분위기가 이주민이 사회 구성원의 일원이라는 점을 상기시켜주고, 나아가 보다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도서관 이용에서 이주민에 대한 어떠한 제한이나 차별을 두지 않는 개방적인 정책을 통해서도 쉽게 감지되었다. 우선,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할 때 이주민은 신분증이나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통한 신분 확인 절차 없이, 지역 내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간단한 서류<sup>21)</sup>만으로 손쉽게 도서관 이용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절차는 자국민은 물론이고, 유학생, 단기 체류자, 심지어 불법체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었다. 이외에도, 영어 사용이 미숙한 이주민을 위한 통역서비스가 제공되고,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사서의 비율의 높은 점 등도 이주민이 커다란 불편 없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노력에 더해, 세 도시의 공공도서관에서는 인종적, 민족적 측면에서 이주민이 가지는 집단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가령, LA공공도서관에서는 사서가 이주민(소수민족)의 커뮤니티 행사에 활발하게 참여하면서 이주민의 주요 관심사와 도서관에 대한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이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해당 지역의 인구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주민 커뮤니티의 유형과 규모, 사회경제적 특성 등에 대해 분석하고, 더불어 다양한 이주민 지원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이주민 집단의 특성과 요구를 직·간접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이주민이 미국 사회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일상적 도움을 제공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미국의 공공도서관에서는 현재 이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들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주민을 위한 서비스는 이주민의 인종·민족적 특성 이외에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있음을 금방 눈치 챌 수 있다. <표 4>에서 보듯이, 이주민의 인종·민족적 특성은 물론이고, 언어, 연령, 교육수준, 신체장애, 경제적 수준, 체류기간

20) U. S. Census Bureau, “State & County QuickFacts”, <<http://quickfacts.census.gov/qfd/states/06/0644000.html>> [2012. 4. 11].

21) 가령, 집 계약서나 집 주소와 이름이 적혀 있는 우편물 등.

등에 따라 이용자의 요구를 세분한 후 그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개발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은 동일 인종·민족 집단에 속하는 이주민 간에도 언어적, 문화적, 교육적, 경제적 측면에서 상당한 ‘다양성’이 존재하며, 이주민 집단이 가진 이러한 ‘복합성’으로 인해 일원화된 서비스의 제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면담에 참여하였던 한 사서는 이 점을 특히 강조하였는데, “이주민 서비스에 있어 인종이나 민족적 특성 못지않게 개인이 처한 ‘상황적’ 변수가 중요하며, 이주민이 처한 상황과 정보요구에 따라 적절한 도서관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sup>22)</sup>

〈표 4〉 이주민 서비스의 대상자 구분

인종·민족 (출신국)	언어	연령	신체장애	경제적 수준
히스패닉 (멕시코, 쿠바 등) 유럽계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폴란드 등) 아시아계 (중국, 일본, 한국, 베트남 등)	영어 모국어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기타장애인	저소득층

한편, 세 곳 도서관 모두 이주민을 위해 영어 이외에 다양한 언어로 된 자료를 상당 수 소장하고 있었다. 이주민에게 있어 모국어로 된 자료는 이주민의 ‘심적 안정’ 뿐만 아니라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다인종·다민족 사회인 미국의 공공도서관에서 다언어 장서의 수집은 지극히 보편적인 현상이라 볼 수 있다.<sup>23)</sup> 다만, 각 도시에 위치한 중앙도서관과 분관은 다언어 장서의 구성에 있어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중앙도서관에서는 가급적 다양한 언어의 자료를 포괄적으로, 그리고 분관에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구성과 특성을 반영한 자료를 선별하여 소장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가령, 히스패닉의 비중이 단연 높은 LA 지역에서, 중앙도서관은 스페인어를 비롯하여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페르시아어 등 다양한

22) LA공공도서관에서는 이주민이 처한 상황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도서관 차원의 대응책에 대해 성문화하고 있다. 이 문서에 나타나 있는 이주민의 상황은 ① 연령이 어린 이주민 집단의 분포가 높거나, ② 특정 이주민 집단이 집단적으로 이주한 경우, ③ 도서관 문화가 덜 발달된 지역 출신의 이주민 집단, ④ 독서 문화가 덜 발달된 지역 출신의 이주민 집단, ⑤ 저소득층 혹은 실직율이 높은 이주민 집단, ⑥ 문맹율이 높은 이주민 집단, ⑦ 교육수준이 낮은 이주민 집단, ⑧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이주민 집단, ⑨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는 이주민 집단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주민이 가진 이러한 특성에 따라 도서관에서는 차별화된 서비스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23) 미국의 공공도서관에서 이주민을 위한 다언어 장서를 본격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한 것은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반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각 지역의 대표 도서관에서만 다언어 장서를 수집하였고, 수집 대상 자료도 주로 유럽계 이주민을 위한 장서로 한정되어 있었다. 이후 1960년대에 이주민의 대폭적인 증가와 함께 많은 도서관에서 다언어 장서의 수집에 관심을 가졌고, 그 대상도 아시아권, 아프리카권, 아랍권 등으로 확대하기 시작하였다(Stephen Stern, “Ethnic libraries and librarianship in the United States: model and prospects,” *Advances in Librarianship*, Vol.15(1991), pp.77-102).

언어로 된 장서를 포괄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반면, Pio Pico Koreatown 분관에서는 한국어 자료가 전체 장서의 60%를, Chinatown 분관에서는 중국어 장서가 전체 장서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중앙도서관과 달리 분관은 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민의 인종적·민족적·문화적 특성이 도서관의 장서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뉴욕 퀸즈도서관과 LA공공도서관, 시애틀공공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다언어 장서는 중앙도서관과 분관을 합쳐 무려 85만 권(28개 언어), 26만 권(28개 언어), 7만7천 권(7개 언어)에 이르고 있었다. 언뜻 보기에 상당한 양의 다언어 장서를 소장한 것 같지만, 이를 이 지역의 거주민 특성과 관련하여 해석해 보면 그 의미는 달라진다. 세 도서관에서 다언어 장서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장서의 11.2%, 3.8%, 3.5%에 해당하고 있어(〈표 5〉 참조), 각 지역에서 이주민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영어가 아닌 모국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주민의 비율과 비교해 보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공공도서관 중에서 가장 많은 다언어 장서를 소장하고 있다고 알려진 '뉴욕 퀸즈도서관'에서조차 거주민의 절반이 이주민이고, 거주민의 절반 이상이 영어가 아닌 모국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언어 장서의 비중은 11.2%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이어진 사서와의 면담을 통해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사서들 중에는 “이주민들에게 모국어로 된 자료를 제공하는 것보다 미국 사회에 빨리 적응 또는 동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경우, ‘쉬운 영어로 쓰여진 미국의 사회·문화·역사 자료’나 ‘이주민 출신의 성공사례 수기’ 등을 제공하고, ‘영어 교육’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이주민들이 미국 사회에 빨리 정착하도록 돕는 방법이며, 나아가 미국 사회에도 보탬이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입장은 “이주민들도 자신이 원하는 언어로 된 자료를 공공도서관에서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공공도서관에서는 이용자의 평등한 접근을 보장해 줄 의무가 있다.”는 의견을 가진 사서들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었다. 이처럼 다언어 장서를 둘러싼 ‘현실론과 이상론’ 사이의 갈등이 다언어 장서의 구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필자가 방문한 세 곳 도서관 모두 이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공공도서관에서 이주민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대부분 그들이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 정착한 기간이 길어 사회문화적 적응의 단계를 나름대로 넘어서고 있는 이주민 집단과 달리, 미국에 갓 이주한 이주민들은 일상에서 실로 다양한 유형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에서는 주로 ‘미국에 갓 이주한 이주민들이 새로운 사회에 정착하여 일상에서 마주치는 기본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수집하여 배포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이에 해당하는 정보는 〈표 5〉에 나타나 있듯이 이민 절차와 제도, 체류자격에 관한 정보, 주거지역 및 주거유형, 주거비용에 관한 정보, 취업 및 사업에 관한 정보, 건강관리나 건강보험에 관한 정보, 세금이나 재정관리, 금융에 관한 정보, 지역사회에 위치한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관한 정보 등이었다.

이주민에게 제공되는 이러한 유형의 정보는 세 도서관 간에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주민의 비율이 높고, 이주민을 위한 서비스의 역사가 비교적 오래된 뉴욕 퀸즈도서관의 경우 정보의 유형이 다양하고 풍부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체계화되어 있었다.<sup>24)</sup> 반면, 비교적 최근 들어 이주민 서비스에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시애틀공공도서관의 경우 나름대로의 정보제공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지만 정보의 규모나 내용이 다소 빈약한 편이었다. 도서관 간에 이렇듯 차이가 있긴 하였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 도서관 모두 이주민 집단이 겪는 기초 생활적 욕구와 관련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면서 '이주민의 일상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보원'으로서의 기능에 충실하고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러한 정보원으로서의 기능에 더해, 공공도서관은 이주민을 위한 교육의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었다. 미국의 공공도서관들이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영어'와 '컴퓨터', '시민권 준비 교육'이라 할 수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의 1/4 이상이 영어로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도서관에서 무료로 진행되는 영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워드 프로세서나 이메일, 인터넷 사용과 같은 기초적인 컴퓨터 교육과 시민권 취득을 위한 미국의 정치·역사·문화의식 교육도 공공도서관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필자가 방문했던 세 도서관에서도 이주민의 '연령'이나 '수준', '인종·민족적 배경'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이주민의 참여와 호응 또한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 신청이 조기에 마감될 정도로 상당히 뜨거운 편이었다.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필자의 관심을 특히 끌었던 것은, 공공도서관에서 이렇듯 다양한 수준과 다양한 유형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파트너십'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가령, 영어 교육이나 컴퓨터 교육은 각 지역에 위치한 literacy center나 community college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권 취득 교육은 immigration center나 각종 사회단체의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이주민 자녀를 위한 숙제도우미(homework help)나 학습법 지도(study skill instructions) 등은 인근 학교나 퇴직교사 등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앞서 살펴본 정보제공 활동에서도 동일하게 목격되었다.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건강정보나 이민정보, 주거정보, 재정정보 등도 지역의 의료센터나 은행, 이주민지원센터와 같은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꾸려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공공도서관에서는 지자체나 각종 사회단체와의 유기

24) 뉴욕 퀸즈도서관은 1977년부터 이주민들을 위해 'New Americans Program(NAP)'을 운영하고 있다. NAP는 이주민들의 모국어로 도서관 자료와 도서관 이용방법을 소개하고, 이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번역하여 제공해 주며, 이주민의 특별한 요구를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등 이주민이 지역 사회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뉴욕 퀸즈도서관에서 운영하는 NAP는 미국 내에서도 이주민을 위한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모범 사례로 널리 알려져 있다(Jens Ingemann Larsen, Deborah L. Jacobs, Ton van Vlimmeren, *Cultural Diversity: how public libraries can serve the diversity in the community*(Gutersloh : Bertelsmann Stiftung, 2004), pp.70-71).

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주민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있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사서들의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주된 이유는 교육 프로그램 자체의 유용성보다는 이들 프로그램을 통해 “이주민들이 미국의 문화나 사회제도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나아가 “미국의 도서관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민들에게 도서관의 기능을 알리고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홍보하는데 효과적”이라는데 있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교육 프로그램은 비록 공공도서관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을 위한 대표적인 도서관 서비스로 간주되고 있었다.

〈표 5〉 이주민 대상 도서관 서비스의 유형

서비스 유형		퀸즈	LA	시애틀
도서관 소개 및 이용 안내		영어외 6개 국어	영어, 스페인어	영어외 5개 국어
도서관 목록(OPAC)			영어, 스페인어	
자료	다국어 장서	28개 언어로 된 854,791권	28개 언어로 된 260,000권	7개 언어로 된 76,996권
정보 제공	이민정보	◎*	○	○
	주거정보	◎		
	구직정보	◎	○*	
	건강정보	○*		
	세금정보	◎		
	재정관리정보	◎*	◎*	
	기타 생활정보(법률, 교육 등)	○		
	관련 기관/단체 안내	○		
교육	영어교육 (수준별·연령별)	○*	○*	○*
	컴퓨터교육	○*	○	○*
	이민권 취득 교육	○*	○	○*
	숙제도우미		◎*	◎*
	독자상담		○	
	가족교육 (영어, 놀이 등)	○		
문화 행사	Story Time(책 읽어주기)	◎		◎
	독서토론 (Book Club)			○
	민족 작가와의 만남			◎
	민족 작가의 그림 전시회			○
	소수민족의 날 행사			○
기타	통역서비스	◎*		◎*
	소수민족의 역사와 문화	◎		◎
	소수민족에 관한 자료 목록		○	○
	소수민족 관련 웹 정보원	◎		

◎ 영어와 영어외 다언어로 제공되는 서비스  
\*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한편, 세 도서관 중에서 문화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는 곳은 시애틀공공도서관이었다. 시애틀공공도서관에서는 이주민의 모국어로 진행되는 스토리 타임(story time)과 독서토론회, 동일 민족 출신 작가와의 만남이나 그림 전시회, 음악 연주회 등과 같은 문화 프로그램을 수시로 개최하고 있었다. 또한, 이주민 출신국의 날(예: Korea's Day)을 개최하여 특정 국가와 관련한 각종 자료, 사진, 그림, 실물 등을 전시하면서 이주민의 문화를 지역 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지역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다문화 접할 수 있도록 소수민족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소수민족 관련 자료에 대한 목록을 별도로 작성하여 배포하는 일도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었다. 이처럼 이주민과 이주민의 자녀들이 자신의 문화와 언어를 유지하고, 나아가 지역 거주민들이 이주민의 다양한 문화를 자연스럽게 경험하도록 하는데 공공도서관이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3. 이주민 서비스의 실체

미국의 공공도서관에서 이주민 서비스는 단숨에 이러한 체제와 형식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주민에 대한 국가의 입장에 따라 도서관의 이주민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왔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도서관은 역사적으로 사회의 철학과 이념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사회적 기관으로서 이주민과 관련한 국가 정책을 실행하는 데에도 다각적인 지원을 하였으리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앞서 글의 도입부에서 언급하였듯이, 이주민을 위한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살펴보면 있어 단순히 걸로 드러나는 피상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내재하는 역사적이고 이념적인 속내를 동시에 분석해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에 지금부터는 이주민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으며, 이와 관련하여 공공도서관의 이주민 서비스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태를 띠며 발전하여 왔는지 그 '실체'에 대해 좀 더 분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sup>25)</sup>

미국에서 이주민의 이주가 본격화된 것은 1880년대부터였다. 1880년대에 500만 명, 1890년대에 370만 명, 1900년대에 630만 명의 이주민들이 미국 땅을 밟았는데, 이들은 주로 유럽 출신의 이주민들이었다.<sup>26)</sup> 이주민의 대대적인 유입이 시작되자 미국의 공공도서관에서는 인구구성의 변화와 그들의 요구사항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주민에 대한 초기의 관심에는 어떠한 정치적 이념이나 의도가 존재하지는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들 유럽 출신의 이주민은 "미국 문화에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간주되어, 이주민의 출신 국가 또는

25) 미국의 이주민 정책과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변화 과정에 대한 기초적 이해는 다음 자료를 통해 확보하였다: Susan Luevano-Molina, *Immigrant politics and the public library*, Westport(Connecticut : Greenwood Press, 2001) ; Plummer Alston Jones Jr., *Still struggling for equality: American public library services with minorities*(Westport, Connecticut : Libraries Unlimited, 2004). 하워드 진, 레베카 스테포프, 살아있는 미국 역사, 김영진 역(서울 : 추수밭, 2008) 등.

26) 최재인, "미국 다문화주의의 역사적 배경," 이민인종연구회, 제1권(2009), p.79.

언어로 된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소극적’인 방침만 존재했을 뿐 이들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는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sup>27)</sup>

이후 1920년대부터 이주를 제한하기 위한 일련의 입법이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의 유입이 계속되자 미국에서는 점차 반이주민 정서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주류 문화인 ‘유럽계 백인 청교도 문화’(WASP: White Anglo-Saxon Protestant)와 달리, 가난한 농촌 출신에, 개신교도가 아닌 이주민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미국의 전통과 정체성에 대한 우려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급기야 이주민들이 미국 사회와 가치관에 쉽게 동화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번져 나갔고, 이주민의 관습과 문화를 녹이고 용해시켜 ‘WASP’ 중심의 미국 전통 문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화 운동’(Americanization movement)을 촉발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미국화 운동의 핵심은 이주민을 미국 시민으로 만들고, 영어로 의사소통하도록 하며, ‘미국적’ 생활 습관과 의식을 갖도록 함으로써 이주민을 미국 주류 문화에 완전히 동화시키고자 하는데 있었다.

이러한 미국화 운동은 연방정부의 지원 하에 학교나 도서관, 공공기관, 기업, 교회, 사회단체 등에서 폭넓게 전개되었다. 이 가운데, 공공도서관은 주로 이주민에게 미국의 전통과 정신을 심어주는 시민 소양 교육과 문맹의 이주민을 위한 언어 교육을 담당하였다. 공공도서관에서 ‘citizenship class’와 ‘ESL class’의 운영이 보편화되고, 이민자 출신 국가의 자료보다 미국화에 도움이 되는 영어 자료에 대한 선호도가 점차 높아지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시기였다. 공공도서관에서 미국화 운동의 실천은 이주민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주민의 인종적·민족적 배경이 다양해진 후 좀 더 큰 규모로 철저히 추진되었다. 미국시민 교육과 언어 교육에 더해, 이주민들이 좀 더 빠르게 미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공공도서관의 의도는 이주민의 상황과도 맞아떨어졌다. 이주민들에게도 미국 사회에 가능한 빨리 적응하여 경제적·사회적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절박한 문제였다. 이에 공공도서관에서는 취업이나 주거, 교육, 직업훈련 등 이주민의 사회 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하였다. 앞서 뉴욕 퀸즈도서관이 다른 지역의 공공도서관들에 비해 이주민을 위한 정보제공 활동을 폭넓게 전개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1960~70년대 이주민의 급증으로 이주민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특히 강조되었던 이 지역에서 이들의 생활 정착을 위한 정보제공 활동은 필수적으로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주민에 대한 미국 사회의 입장은 줄곧 주류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는데 집중되어 있었다. 국가의 원형질 보존과 유지, 그리고 국가 정체성의 형성이라는 문제는 미국 사회에서 그만큼 절박한 것이었다. 이러한 정책 하에, 공공도서관에서는 이주민들이 출신 국가에서의 삶의 방식을 벗어던지고 미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동화되도록, 나아가 국가적 차원에서 큰 장애물 없이 빠르고 수월하게 사회통합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

27) Plummer Alston Jones Jr., *op. cit.*, p.16.

는 이러한 의도로 진행된 프로그램들이 현재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데 있다. 아직도 많은 공공도서관들에서 이주민에게 영어나 미국 시민정신, 미국 역사를 가르치는 임무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주민에 대한 미국의 ‘동화’ 정책이 여전히 고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1980년대에 이르러 다양한 인종적·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이 미국 전통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들의 행동양식과 습관, 의식, 언어 등을 유지하려고 하면서 점차 주류 문화와의 갈등을 초래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더해, 이주민에 대한 그간의 동화 정책이 보수적이고 강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자 개혁적 성향의 인사들이 나서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이전까지 추구하였던 미국 주류 문화로의 ‘동화’를 포기하고, 정책의 목표를 캐나다가 추구해 온 ‘다문화’ 정책으로 이주민 통합방식을 변경한 것이다.<sup>28)</sup>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확산된 이러한 ‘문화적 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는 다양한 문화적 민족적 배경을 가진 집단들이 자신의 모습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데 핵심이 있었다. 이에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심지어 이를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시대적 조류라는 인식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의도적으로 확산시키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곧 사서들의 인식 변화로 이어졌다. 이주민은 물론이고 “모든 이용자가 도서관 자원에 평등하게 접근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 사서들 사이에서 급격히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들 사서들 가운데에는 심지어 공공도서관에서 미국의 주류문화를 옹호하고, 영어를 사용하는 커뮤니티만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행태가 명백한 ‘인종 차별’이며 ‘反민주적’이라고 강하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sup>29)</sup> 이러한 논쟁은 장서개발 정책에 이주민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도서관 이용에 있어 이용자의 신분 확인 절차를 철폐하며, 영어 이외의 언어로 책읽어주기 프로그램 등을 확산하고자 하는 전국적인 도서관운동으로 이어졌다.<sup>30)</sup> 이주민 서비스에 있어서만큼은 다소 후발주자였던 시애틀공공도서관이 뉴욕 퀸즈도서관이나 LA공공도서관과 달리, 이주민의 언어로 진행

28) 1990년대부터 이주민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문화적 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를 지향하고 있다. 문화적 다원주의는 일반적인 다문화 정책과 같이 다양한 문화나 가치, 다양한 인종·민족 집단과 그들의 개별적인 언어와 습관을 그대로 공존시키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미국에서 지향하는 이러한 문화적 다원주의는 캐나다의 다문화주의의 입장과 다소 상이하게 간주되고 있다. 미국의 문화적 다원주의는 이주민이 가진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여전히 ‘미국 전통 문화’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반면, 캐나다의 다문화주의는 주류 문화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다양한 문화가 평등하게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미국은 샐러드볼(salad bowl)에, 캐나다는 ‘모자이크’에 비유되고 있다(김미나, “다문화 사회의 진행 단계와 정책의 관점.” 행정논총, 제47권, 제4호(2009), p.199).

29) T. Pineda, “Libraries and immigrants,” <<http://libraryhistory.pbworks.com/w/page/16964659/Libraries%20and%20immigrants>> [cited 2012. 4. 18].

30) 이러한 운동의 핵심에는 ‘히스패닉과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도서관 정보서비스 증진을 위한 국가협의회’인 REFORMA와 같은 이주민 지원 단체가 있었다. REFORMA의 주요 임무는 ① 스페인어와 히스패닉을 위한 도서관 장서를 개발하도록 하고, ②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사서들을 채용하도록 하며, ③ 히스패닉에 대한 도서관의 이해를 증진하고, ④ 히스패닉 커뮤니티의 정보요구를 대변하며, ⑤ 다른 전문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을 지향하는데 있다. REFORMA: The National Association to Promote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to Latinos and the Spanish-Speaking. <<http://www.reforma.org>> [cited 2012. 4. 18].



되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나 소수민족의 문화를 지역 주민들에게 소개하는 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이유도 이처럼 이주민 서비스에 대한 입장을 ‘주류문화로의 동화’보다는 ‘문화적 다양성’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주민이나 소수민족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증폭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주민의 배경과 도서관 경험, 정보요구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이주민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을 모색하는 연구들을 쏟아내기 시작하였다.<sup>31)</sup> 이러한 학술적 관심은 문화적·언어적 측면에서 다양한 특성을 가진 이주민 커뮤니티를 보다 세분화하여 분석하거나, 이주민 서비스를 위한 사서의 자질이나 능력, 나아가 예비사서 양성을 위한 문헌정보학 교육과정 등에 대한 논의로도 확산되었다.

이처럼 미국 공공도서관계의 이주민 서비스는 이주민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 혼재된 상황이라 볼 수 있다. 100년 이상 지속된 치열한 경험은 이주민을 미국 주류문화에 통합함으로써 미국의 지배적인 이념을 유지하고자 하는 입장과, 이주민의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입장을 동시에 존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우리가 미국 도서관계의 사례를 참조할 때, 특히 ‘다문화 서비스’를 참조하고자 할 때 특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주민 서비스 가운데 다문화적 사상과 이념이 반영된 부분만을 별도로 떼어 내어 살펴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문화와 관련한 이러한 입장은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다양한 각도에서 또 다른 비판을 받고 있다. 비판의 목소리는 주로 이러한 다문화 정책이 미국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사회적 분열과 저항을 조장한다는 데 있다.<sup>32)</sup> 이러한 비판은 9. 11 사건 이후 더욱 거세지면서, 미국 사회에서 이주민에 대한 ‘동화’ 정책을 다시 한 번 부활하려는 기저로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 미국이 주류문화와 비주류 문화, 자국민과 이주민에 대한 갈등과 혼란을 어떻게 화합하여 나갈지, 이와 관련하여 이주민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서비스는 또 다시 어떠한 변화를 겪을지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 IV. 미국의 사례가 한국 도서관계에 주는 교훈

이쯤에서 우리의 현실로 눈을 돌려보자.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단군의 자손’, ‘배달민족’, ‘단일민족’ 등의 개념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자부심을 강하게 드러내어 왔다. 다양성보다는 단일함, 개인주의보다는 집단주의에 더욱 가치를 두고 있는 민족이라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

31) 문헌정보학 학술 DB인 LISTA에서 검색해 보면, 1990년대 이후 ‘library service(s) for immigrants/migrant workers’를 비롯하여 ‘Chinese-specking communities’, ‘Spanish-specking communities’와 같이 특정 언어를 사용하는 커뮤니티 혹은 ‘ethnic minority groups’를 주요 키워드로 하는 학술 논문이 각각 수십 편에 이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2) 최재인, “미국 다문화주의의 역사적 배경,” 이민인종연구회, 제1권(2009), p.89.

듯 동질의식을 강조해 온 문화적 전통 속에서, 우리는 '다름'을 인정하는 역사적 경험을 축적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다른 문화에 대한 '배타성'과 '편견'을 키워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화적 뿌리를 가진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작스럽게 '정책적으로' 펼쳐진 다문화는 아직까지도 자연스럽게보다는 '부조'와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주민의 유입은 앞서 살펴본 미국과는 상당히 다르게 전개되었다. 인종·민족 단위의 대규모 이주보다는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한 아시아계 여성이나 북한이탈주민, 단기거주 이주 노동자와 같이 주로 자국에서의 열악한 경제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주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유학생이나 전문 인력, 다국적기업 진출자, 사업가 등과 같은 장기 체류 외국인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이주민은 이주 목적과 이주 과정, 이념적 배경, 출신국 등에서 상당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주민의 수도 지난 10여 년 간 크게 증가하였다고는 하지만, 이 또한 미국의 상황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2010년 말 현재 체류 외국인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2.5%에 불과하고, 정주 외국인만 따진다면 0.06%에 지나지 않고 있다.<sup>33)</sup>

이주민 정책에 있어서도 우리는 여전히 경직되고 강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겉으로는 '다문화'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주민을 주류문화에 일방적으로 동화시킴으로써 문화적 단일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주민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인정하고 존중하기보다는 우리와는 다르다는데 강조점을 두고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에, 보편성보다는 특수성에 주목하고 있다.<sup>34)</sup> 정책의 대상 또한 체류 외국인의 11.4%에 불과한 '결혼이주여성'에게만 집중되어 있어 이주민에 대한 통합적 정책조치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이주민에 대한 정책과 제도는 물론이고, 이주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의식은 아직 '다문화'와는 거리가 먼 초보적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문화와 관련하여 오랜 역사적 갈등을 경험하면서 발전을 거듭해 온 미국 혹은 서구의 다문화 모델을 여과 없이 성급하게 이식하고자 하고 있다.

우리 도서관계에서 그간 진행해 온 다문화 서비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문화를 이주민과 동일시함으로써 '다문화 서비스'의 개념을 축소·왜곡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당연한 의무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시혜' 차원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주민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도 이주민 지원 기관이나 단체에서 제공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각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민 집단의 특성과 요구에 적합한 다언어 장서를 제공하거나 이주민의 일상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보원으로서 제대로 기능하는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고, 주로 결혼이주여성과 같은 제한된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이나 컴퓨터 교육, 문화체험활동, 책읽어주기 등과 같은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프로그램만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도서관계의 경험은 비록 우리의 상황과는 여러 면에서 다를지라도 충분히 참조할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33)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0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법무부, 2011), p.264.

34) 다문화어린이도서관 모두, 도서관에서 다문화를 만나다(국립중앙도서관, 2010), p.12.

관련 연구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어려움은 의사소통 문제에서부터 가족 간의 갈등, 육아 및 자녀 교육문제,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정체성 혼란, 사회적 편견과 차별 등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다양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성, 연령, 거주지, 종교, 국적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적절한 해결책의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지금부터는 이주민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 도서관계의 역할을 미국의 사례를 참조해 가면서 제안해 보고자 한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다문화 서비스'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다문화의 의미에 대한 우리 도서관계의 정확한 이해이다. '다문화'를 '이주민'과 동일시하는 한 우리 도서관계에서 다문화 서비스는 오히려 인종적 구별과 갈등을 더욱 드러내고 서비스의 범위를 극도로 제한하는 결과로 왜곡될 소지가 있다. 이주민을 우리와는 다른 사람으로 바라봄으로써 자국민과 격리 또는 분리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고착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왜곡된 시각은 다문화 서비스의 대상을 이주민으로만 국한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다문화는 "인종·민족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이 가진 문화"를 의미하며, "각 사회계층이 가진 문화적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이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서관에서의 다문화 서비스는 '이주민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어떠한 차별도 없이 동등하게 제공받는 도서관 서비스'이며, 특히 '문화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포용, 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서비스'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도서관계의 다문화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이 제고되어야 한다. 우선, 다문화 서비스의 대상을 이주민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구성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관련 연구들은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에 대해 이들을 바라보는 '차별적 시선'과 '편견'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주민에 대한 포용적 자세를 가진 미국의 상황과는 달리, 전통적으로 동질의식을 강조해 온 우리에게 이주민이 가진 '다름'은 자연스럽게 '차별'로 연결되고 있다. 도서관에서의 다문화 서비스가 이주민의 한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양성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이주민에 대한 관용과 배려, 존중과 조화로운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앞서 살펴본 미국의 시애틀공공도서관에서 이주민의 다양한 문화를 지역 사회에 소개하고, 이주민의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배포함으로써 이주민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를 자연스럽게 증진해 나가고 있는 사례를 충분히 참조해 볼 만 하다.

다음으로, 이주민에 대한 서비스는 장애인, 노숙자, 국내 거주 해외동포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소수자에 대한 서비스와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공공도서관에서 다문화 서비스는 이러한 다양한 사회계층을 포괄하는 것이었지만, 이 연구에서는 부득이 이주민과 관련한 활동만 따로 떼어 살펴보았다. 그러나 미국에서 이주민 서비스는 다양한 사회계층을 위한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

되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령, 이주민 자녀의 학습 지원 서비스는 이들만을 위해 별도의 서비스를 운영하기도 있지만, 일정 시기가 지나면 일반 어린이·청소년 서비스에 이들을 자연스럽게 합류시키고 있다.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노인 계층을 위해 마련한 서비스에도 이주민이 함께 고려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 도서관계에서도 이주민 서비스를 다양한 사회계층, 특히 소수계층을 위한 서비스와의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서비스를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이주민'을 위한 구체적인 도서관 서비스의 마련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서비스의 마련을 위해서는 우선 이주민 집단의 특성과 요구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미국의 공공도서관에서는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민 집단의 특성과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도서관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렇게 분석한 결과는 이주민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의 한 연구는 우리 도서관계의 이주민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저조한지에 대해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에게 도서관에 바라는 점을 조사한 결과, 1순위가 '이주민을 위한 도서관 자료의 확충'이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의 운영'이 아니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를 가진 도서관 직원'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sup>35)</sup>

한편, 현재 이주민에게 제공되는 도서관 서비스는 주로 한국어 교육이나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국한되어 있고, 공공기관이나 복지관,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전개하는 이주민 사업과 큰 차별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의 강점을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는 이주민 서비스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도 미국 공공도서관은 좋은 사례가 된다. 이주민이 겪는 기초 생활적 욕구와 관련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면서 '이주민의 일상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보원'으로서의 기능에 충실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이주민에게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이민정보, 주거정보, 취업정보, 의료정보, 교육정보 등으로 상당히 다양하였다. 이러한 정보는 우리나라에서 이주민들이 사회 정착과 관련하여 호소하는 어려움과도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충분히 참조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미국의 사례는 이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여 제공하는 방식과 관련하여서도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들은 도서관 차원에서 이 모든 정보를 직접 확보하기보다 지역 내 관련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주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한데 모아 서비스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여기에,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나 웹 정보 중에서 이주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정보요구나 상황별로 재가공하여 제공함으로써 이주민들에게 상당히 가치 있는 정보로 활용되고 있었다. 이처럼 우리 도서관계에서도 지자체와 이주민지원센터,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과 역할 분담을 통해 이주민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를 차별화해 나가는 한편, 이주민의 특성과 요구, 거주 지역 등에 따른 특화된 도서관 서비스를 마련해야 할 것이

35) 한윤옥, 조미아, 김수경, "다문화가정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 43권, 제1호(2009), p.150.

다.<sup>36)</sup> 이 과정에서, 객관적인 정보원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이주민이 가지는 감성적 문제(가령, 가족 간의 갈등이나 외로움, 고립 등)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면 '한국적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다문화 서비스가 충분히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 V. 결론

미국 공공도서관의 이주민 서비스를 들여다본 후 필자가 내린 결론은 미국의 경험은 우리가 참고하기에 유용하지만,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었다. 우리의 모델로 삼기에 미국의 환경과 입장은 우리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다. 미국은 인구구성 면에서 우리나라에 비해 월등히 이주민의 비율이 높은 나라이며, 모든 국가 정책에서 이들 이주민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특수한 입장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오랜 사회적 갈등과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으로는 그 이면에 내재한 의미와 역사를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서관계에서는 미국이나 서구 도서관의 사례를 급작스럽게 이식하고자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미국 공공도서관에서 추진해 온 이주민 서비스의 발전과정과 사례를 보다 구체적이고도 실증적으로 조사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을 가려내고자 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미국 공공도서관의 경험과 비교해 볼 때, 우리 도서관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 서비스는 실질적으로 '다문화' 서비스라고 부르기엔 부적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문화 서비스를 이주민을 위한 서비스와 동일시하면서 그 의미를 축소·왜곡하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주로 한국어 교육이나 문화체험활동에 국한되어 있어 '다문화'다운 서비스라 하기에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미국 공공도서관의 다문화 서비스는 이주민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서비스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주민을 위한 서비스에서도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포용'의 개념이 밑바탕에 자리하고 있음을 쉽게 감지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도서관계에서 다문화 서비스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다문화'의 의미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더불어,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포용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하여, 우리의 상황과 문화적 특성에 맞는 방안들을 하나씩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이번 연구를 정리하면서 남는 아쉬움은 후속연구를 통해 보충하고자 한다. 먼저, 기회가 된다면, '이주민' 서비스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집단을 아우르는 미국의 '다문화 서비스'의 실체에 대해 중

36) 현재 우리 도서관계에서 이주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는 거주 지역이나 이주민의 특성에 따른 차이가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다. 가령,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요구는 당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두 지역에서 제공하는 도서관 서비스에는 큰 차이를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이주민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도서관 서비스 전략의 마련이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합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우리에게 있어 다문화는 주로 '이주민의 문화'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미국 공공도서관의 '이주민 서비스'만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미국의 다문화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성찰과 조망은 향후 우리 도서관계에서 다문화 서비스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험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에 더해, 우리와는 이주민의 비율이나 인구구성이 비슷한 일본 도서관계의 이주민 서비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단일민족사회에 인종적 다양성이 보태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미국보다는 오히려 일본의 사례가 참조하기에 보다 적합할 수 있다. 따라서 가까운 일본의 사례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고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후속연구가 진행되어 논의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대해본다.

## 참고문헌

- 김미나. “다문화 사회의 진행 단계와 정책의 관점.” 행정논총, 제47권, 제4호(2009), pp.193-222.
- 김선미. “‘한국적’ 다문화정책과 다문화교육의 성찰과 제언.” 사회과교육, 제50권, 제4호(2011), pp.173-190.
- 다문화어린이도서관 모두. 도서관에서 다문화를 만나다.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10.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0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서울 : 법무부, 2011.
- 안인자, 박미영. “공공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 사례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5권, 제3호(2011), pp.279-301.
- 양수연, 차미경. “공공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5권, 제1호(2011), pp.311-332.
- 윤인진.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한국사회학, 제42집, 제2호(2008), pp.72-103.
- 이경희. “한국 다문화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육사회학연구, 제21권, 제1호(2011), pp.111-131.
- 이제환. “재미한인의 정보행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9권, 제2호(2008), pp.39-63.
- 조용완·이은주. 다문화사회에서의 도서관 서비스. 경기도 : 경기도사이버도서관, 2010.
- 최재인. “미국 다문화주의의 역사적 배경.” 이민인종연구회, 제1권(2009), pp.75-96.
- 하워드 진, 레베카 스테포프. 살아있는 미국 역사. 김영진 역. 서울 : 추수밭, 2008.
- 한윤옥, 조미아, 김수경. “다문화가정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3권, 제1호(2009), pp.135-160.

- Castles, S. & M.J. Killer.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N.Y. : The Guilford Press, 2003.
- Jinja, Han and Kim Yong. "Cultural diversity and the role of community public libraries for newcomers to america."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1권, 제1호(2010), pp.19-29.
- Jones, Plummer Alston. *Still struggling for equality: American public library services with minorities*. Westport, Connecticut : Libraries Unlimited, 2004.
- Larsen, Jens Ingemann, Deborah L. Jacobs, and Ton van Vlimmeren. *Cultural Diversity: how public libraries can serve the diversity in the community*. Gutersloh : Bertelsmann Stiftung, 2004.
- Lim, Yeo-Joo. "Public library services for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정보관리학회지, 제26권, 제2호(2009), pp.7-25.
- Luevano-Molina, Susan. *Immigrant politics and the public library*. Westport, Connecticut : Greenwood Press, 2001.
- Martin, Philip & Elizabeth Midgley. *Population Bulletin Update: Immigration in America 2010*. Population Reference Bureau, 2010, <<http://www.prb.org/pdf10/immigration-update2010.pdf>> [cited 2012. 4. 11].
- Peterson, Lorna. "Multiculturalism: affirmative or negative action?." *Library Journal*, Vol.120, No.12(July 1995), pp.30-33.
- Pineda, T. "Libraries and immigrants." <<http://libraryhistory.pbworks.com/w/page/16964659/Libraries%20and%20immigrants>> [cited 2012. 4. 18].
- Smith, Paula M. "Culturally conscious organizations: a conceptual framework." *Libraries and the Academy*, Vol.8, No.2(2008), pp.141-155.
- Stern, Stephen. "Ethnic libraries and librarianship in the United States: model and prospects." *Advances in Librarianship*, Vol. 15(1991), pp.77-102.
- The Free Dictionary. <<http://www.thefreedictionary.com/multicultural>> [cited 2012. 4. 6].
- U. S. Census Bureau. "State & County QuickFacts", <<http://quickfacts.census.gov/qfd/states/06/0644000.html>> [2012. 4. 11].
- U. S. Census Bureau. "The 2012 Statistics Abstract: The National Data Book." <<http://www.census.gov/compendia/statab/cats/population.html>> [2012. 4. 11].